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핀테크(FinTech)의 부상과 금융업의 변화

목 차

■ 핀테크(FinTech)의 부상과 금융업의 변화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	3
3. 핀테크의 부상에 따른 금융업의 변화	5
4. 시사점	8

Executive Summary

<요 약>

■ 개 요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의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전자금융이 기존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지속적 혁신'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핀테크는 기존 금융업 가치사슬을 뒤바꾸는 '파괴적 혁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금융서비스(banking)가 금융회사(bank)에서 분리되는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금융업계는 핀테크의 발전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핀테크가 금융업에 초래할 변화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

(세계) 핀테크가 글로벌 금융권 및 IT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연평균 26.1%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는 2008년 9억 3,000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 7,000만 달러로 5년 동안 연평균 26.1% 증가하였으며, 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의 금융 스타트업 업체 수는 2014년 1월 2개에서 2016년 2월 16개로 증가하였다.

(국내) 한국은 모바일 환경과 기술력으로 보면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규제로 인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핀테크 사업자들이 등장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은 초기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다. 지급결제 부문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하며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금융회사와 IT회사의 제휴·위탁을 통한 모바일 banking, APP 카드(앱카드) 등 신규 금융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핀테크의 부상에 따른 금융업의 변화

① 금융업의 기능별 분해(Unbundling)

금융거래가 ICT 기업에 의해 처리될 경우 금융업은 기능별로 분해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 서비스를 기능별로 분해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초기에는

소비자에게 접근이 쉬운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점차 금융소프트웨어, 데이터분석, 플랫폼 영역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② 금융 가치사슬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금융회사의 적극적 대응은 금융업의 기능별 분해 이후 재구조화를 주도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수익모델이 기존 금융회사의 수익하락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금융권은 핀테크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 노력은 금융업의 기능별 분해와 맞물려 기업 간 합종연횡을 통해 금융 가치사슬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 금융회사는 협력(조인트 벤처), M&A, 벤처 육성, 자체 서비스 출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③ 금융업의 규제 장벽 완화

금융업은 대표적인 망(network)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당국의 엄격한 감독 하에 자격요건을 갖춘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게만 허용되어 왔다. 그런데, 핀테크의 성장은 금융업의 자연독점적 성격을 변화시키고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 금융거래의 국가간 경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기존 금융인프라를 우회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금융업에 대한 규제의 관점도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업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 시사점

금융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핀테크 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금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첫째**,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전하고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기존의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 서비스 규제를 둘러싼 논의와 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핀테크의 활성화의 핵심인 보안 강화를 위해 기술적,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도화, 지능화되는 금융보안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일시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출시하기보다는 시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시된 서비스들은 향후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 '무현금사회'를 지향하는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소비자들이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다양한 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현금 지급수단의 편리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1. 개요

○ 핀테크는 금융과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의 파괴적 혁신¹⁾을 주도

- (정의)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IT 융합형 신기술·신산업을 의미함
 - 지급결제, 자금중개, 위험관리, 정보관리 등 기존 금융서비스의 모든 영역에 핀테크가 적용되며 금융업의 혁신이 가속화
- (특징) 금융서비스(banking)가 금융회사(bank)에서 분리되는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금융업계는 핀테크의 발전 방향에 주목
 - 기존 전자금융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주도하고 IT 기업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반면, 핀테크는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존 금융서비스 영역에 진출
 - 전자금융이 기존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지속적 혁신'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핀테크는 기존 금융업 가치사슬을 뒤바꾸는 '파괴적 혁신'의 속성을 지님

< 전자금융과 핀테크 비교 >

구분	전자금융	핀테크
정의	전자적 채널을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IT와 금융이 다양하게 융합되고 신산업 창출
역할	금융 인프라 지원	기존 인프라를 우회 또는 대체하여 금융서비스 직접 공급
수익 모델	금융회사가 주도, IT가 금융거래 지원	IT 기업이 주도, 금융회사와 경쟁·협력
주요 기업	IBM(IT솔루션) Infosys(IT하드웨어) SunGard(금융소프트웨어) Symantec(정보보안)	Alipay(지급결제) Kickstarter(클라우드 펀딩) Lending Club(P2P 대출) Wealthfront(자산운용) FidorBank(인터넷은행) CoinBase(Bitcoin)
비고	PC 기반 금융/대형IT회사 중심	모바일 기반 스타트업 중심

자료 : Ernst & Young.

1) 하버드 경영대학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 교수는 1997년 저서 "The Innovator's Dilemma: When New Technologies Cause Great Firms to Fail" 에서 신기술의 혁명적 변화가 기업의 존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파괴적(disruptive) 기술"이란 말을 처음 사용.

○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서비스의 본질이 정보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금증개, 지급결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업에 진출을 가속화

- (사례1: P2P 대출) 은행 등 전통적 의미의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이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
 - P2P 대출은 2005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최초의 P2P 대출회사인 영국의 Zopa, 미국의 LendingClub, SoFi, Prosper, 중국의 SinoLending, CreditEase 등의 플랫폼이 성행

< 은행 대출과 P2P 대출의 개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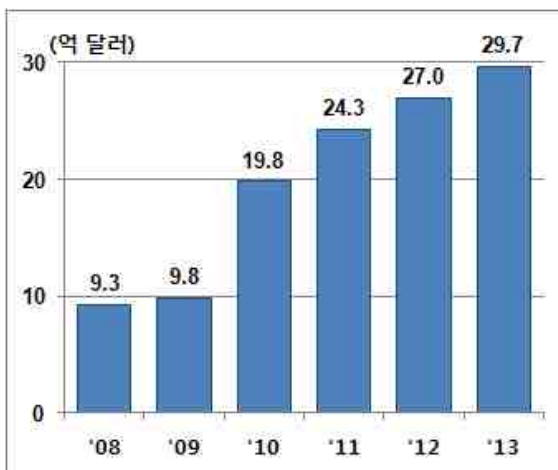
- (사례2: 애플페이) 애플은 사용자의 편리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애플페이’를 출시함으로써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옴
 - 미국의 애플사는 카드사와 연합하여 2014년 10월부터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애플페이(Apple Pay) 서비스를 시작
 - 애플페이는 아이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먼저 저장해둔 후, 터치ID(지문인식)와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
 - 이후, 중국의 알리바바가 구축한 ‘알리페이’, 삼성의 ‘삼성페이’,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 등 유사 서비스가 등장하며 핀테크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
- 이에 본고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핀테크의 발전이 금융업에 초래할 변화를 전망하여 시사점을 도출

2.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

○ 세계 핀테크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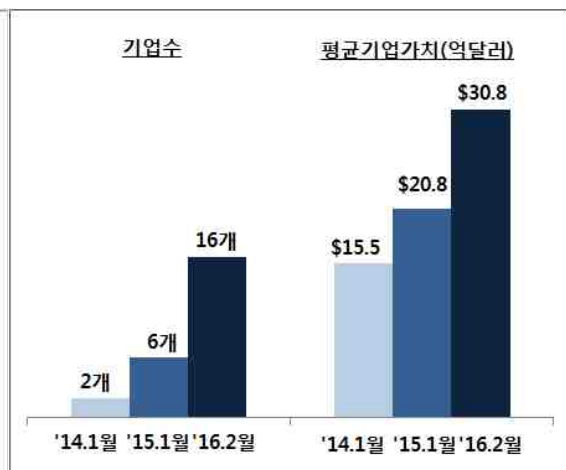
- 핀테크가 글로벌 금융권 및 IT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연평균 26.1%의 고성장을 기록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는 2008년 9억 3,000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 7,000만 달러로 5년 동안 연평균 26.1% 증가²⁾
 - 이는 금융업과 ICT 산업이 저성장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상호간의 융합을 통해 고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투자가 확대되면서 금융 스타트업도 빠르게 증가
 - 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의 금융 스타트업(이하 빌리언달러 금융스타트업) 업체 수는 '14.1월 2개에서 '16.2월 현재 16개로 8배 증가
 - 같은 기간 빌리언달러 금융 스타트업의 기업 당 평균 기업가치는 15.5억달러에서 30.8억 달러로 2배 가량 확대

<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 추이 >



자료 : Accenture(2014).

< 빌리언달러 금융스타트업 추이 >



자료 : WSJ.

2) Accenture, 2014, 'The Boom in Global Fintech Investment'.

○ 국내 핀테크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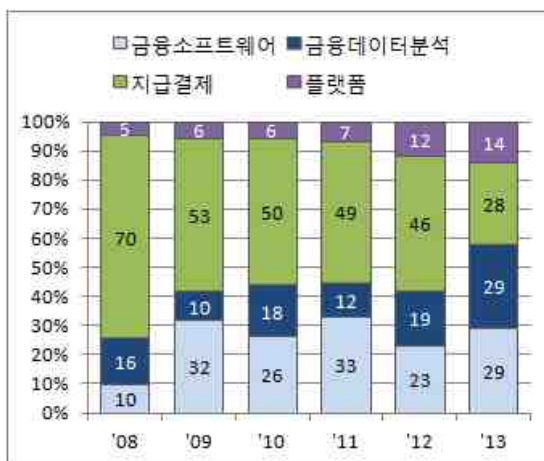
- 한국은 모바일 환경과 기술력으로 보면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규제로 인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지체
- (긍정적 요인) 인터넷, 스마트폰, 솔루션, 보안 등 기술력과 인프라 보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핀테크 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보유
 - 세계적 수준의 ICT기술, 초고속 통신망 등 ICT 강국의 저력이 있고 우수한 금융인력, IT전문가 등 관련 인적자원도 풍부
 - 온라인모바일 환경 변화와 첨단 IT 기술에 대한 적응력과 친화력이 높은 적극적인 소비자들이 풍부하게 존재
- (부정적 요인) 금융시장의 낮은 자율성, 금융당국의 높은 관리·감독 수준, 사전 보안성 심의 등 국내 금융서비스 규제 환경은 혁신 활동을 저해
 - 기존 오프라인 금융거래를 기본으로 설계된 금융규제 체계는 IT융합형 新서비스,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등의 신기술 활용을 제약
 -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가 지속되면서 IT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낮음
 - 다양하게 창출되고 있는 핀테크 관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금융회사와 IT간 M&A, 제휴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도 부진한 상황
- 최근 정부는 금융서비스 선진화 및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핀테크 사업자들이 등장하여 초기 성장기에 진입
 - 금융위원회는 2015년 'IT·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 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등을 추진*
 - * 보안성심의 폐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 특정기술 사용의무 폐지,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등
 - 지급결제 부문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하며 초기 시장이 형성
 - 금융회사와 IT회사의 제휴·위탁을 통한 모바일 banking, APP 카드(앱카드) 등 신규 금융서비스가 다양화
 -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대출심사의 전문성 제고 등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방식도 혁신되고 있음

3. 핀테크의 부상에 따른 금융업의 변화

① 금융업의 기능별 분해(Unbundling)

- 금융거래가 ICT 기업에 의해 처리될 경우 금융업은 기능별로 분해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
 - 기존 은행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들에 대응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
 -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 서비스를 기능별로 분해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 영역을 대체
- 초기에는 소비자에게 접근이 쉬운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점차 금융소프트웨어, 데이터분석, 플랫폼 영역으로 시장이 확대
 - 핀테크 초창기인 2008년에는 지급결제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이 70%로 가장 높았으나 2013년에는 28%로 축소
 - 금융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8년 10%에서 2013년 29%로 증가하였으며, 금융데이터 분석 부문의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29%로 증가
 - 플랫폼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8년 5%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4%로 빠르게 증가

< 2008-2013년 부문별 핀테크 투자 >



자료 : CB Insights(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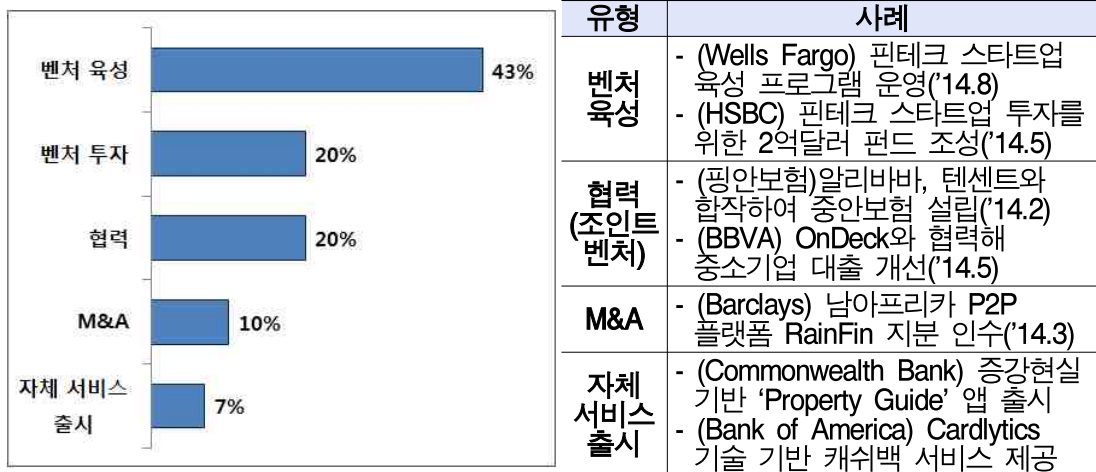
< 금융 기능별 주요 핀테크 기업 >

유형	사례
지급결제	Alipay(결제)
	Venmo(결제)
	TransferWise(해외송금)
	Coinbase(비트코인)
자금중개	Kickstarter(크라우드펀딩)
	LendingClub(P2P 대출)
	Wealthfront(자산운용)
	FidorBank(인터넷은행)
위험관리	Bought By Many (보험중개)
정보관리	TrustCloud(신용평가)
	Mint(개인자산관리)

② 금융 가치사슬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금융회사의 적극적 대응은 금융업의 기능별 분해 이후 재구조화를 주도
 - 핀테크 기업의 수익모델이 기존 금융회사의 수익하락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금융권은 핀테크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이러한 대응 노력은 금융업의 기능별 분해와 맞물려 기업 간 합종연횡을 통해 금융 가치사슬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핀테크 기업의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 금융회사는 협력(조인트 벤처), M&A, 벤처 육성, 자체 서비스 출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 (벤처 육성) 글로벌 금융사는 주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가동, 투자 펀드 조성 등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응하며 Wells Fargo 은행, HSBC 은행, 스위스의 UBS 금융그룹이 대표적
 - (협력) 중국의 핑안보험, 스페인의 BBVA 등과 같이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혁신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비중도 20% 가량 차지
 - (M&A) 영국의 Barclays, 러시아의 Sber Bank, 스페인의 BBVA 등처럼 글로벌 핀테크 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경쟁 우위를 지속하는 비중은 약 10%
 - (자체 서비스 출시) 호주의 Commonwealth Bank, 미국의 Bank of America, 터키 최대 은행인 Garanti 등은 핀테크를 적용한 자체 서비스를 출시

< 글로벌 금융사의 핀테크 대응 현황 > < 글로벌 금융사의 핀테크 대응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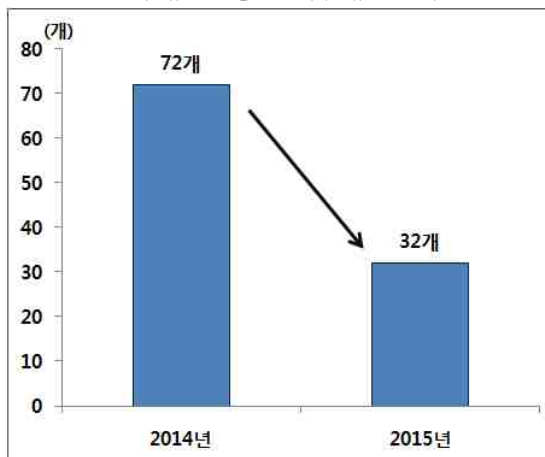


자료 : Statista.

③ 금융업의 규제 장벽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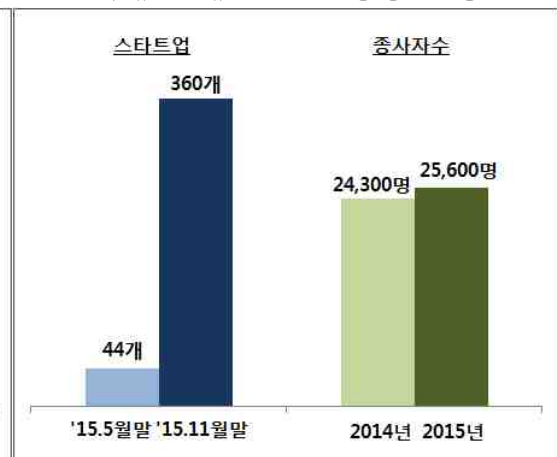
- 금융업은 대표적인 망(network)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당국의 엄격한 감독 하에 자격요건을 갖춘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게만 허용되어 왔음
 - 금융 하부구조를 이루는 금융망에 대한 과잉투자를 막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망에 대한 접근은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통제
 - 따라서 금융업은 망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독점적 산업의 성격을 지님
- 그런데, 핀테크의 성장은 금융업의 자연독점적 성격을 변화시키고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 금융거래의 국가간 경계를 약화시킬 전망
 - 기존 금융인프라를 우회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금융업에 대한 규제의 관점도 변화
 - 자금공여자와 자금수요자를 매칭시키는 클라우드 펀딩, P2P 대출 등의 플랫폼은 은행의 예금, 대출 업무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기존 규제를 무력화
 - 또한,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망을 통해서 금융서비스가 전달되면서 국가 간 경계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
- 국내에서도 금융업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됨
 - 전자금융업 허가를 위한 심사항목 수는 2014년 72개에서 2015년 32개로 감소
 - 산업 수요 급증, 금융업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수는 '15.5월 44개에서 '15.11월 360개로 급등

< 국내 금융업 규제 변화 >



자료 : IITP.
주 : 전자금융업 허가를 위한 심사항목 수 기준.

< 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 현황 >



자료 : 한국핀테크포럼, 금융보안원.

4. 시사점

- 금융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핀테크 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금융 생태계 조성이 필요
 - 첫째,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전하고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
 - 정부는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기존의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 서비스 규제를 둘러싼 논의와 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둘째, 핀테크의 활성화의 핵심인 보안 강화를 위해 기술적,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
 -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도화, 지능화되는 금융보안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근본적으로 IT 기업 및 금융기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
 - 본인 인증의 정확성 제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거래 등 보안 취약점을 개선 등 비대면인증의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셋째, 일시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출시하기보다는 시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금융권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가 제기
 -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시된 서비스들은 향후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경쟁적으로 출시되는 핀테크 서비스들이 시장을 통해 옥석이 가려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장기적으로 '무현금사회'를 지향하는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
 - 모든 소비자들이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다양한 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현금 지급수단의 편리성 및 수용성을 제고
 - 금융권이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체계를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국내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간 협조체제 구축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HRI**

장우석 연구위원 (2072-6237, jangws@hri.co.kr)

전해영 선임연구원 (2072-6241, hjeon@hri.co.kr)